

출혈성 췌장미부암으로 오인된 부비장 경색

전남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이석 · 황호인 · 염상민 · 윤경원 · 조석 · 박선영 · 박형천 · 조성범 · 이완식 · 박창환 · 김현수 · 최성규 · 유종선

서론 : 부비장은 전인구의 10%에서 발생하는 비장의 중복 조직으로 위치는 비장문 주위가 거의 대부분이며, 췌장을 포함한 복강 내 어느 부위에든 위치할 수 있다. 성인에서 췌장 내 부비장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무증상이나 방사선 검사에서 암종과 구분이 어려울 위, 위, 소장, 부신, 췌장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저자들은 출혈성 췌장 미부암으로 오인되어 원위부 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 검사에서 부비장 경색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28세 여자로 만성 B형 간염, 자궁내막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원 5일전부터 좌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에서 췌장미부에 약 2.5cm 크기의 출혈성 합병증을 동반한 종괴가 발견되어 수술을 위해 전원 되었다. 내원시 신체검사상에서 좌상복부 및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혈액검사는 amylase 50 IU/L, lipase 46U/L 등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암표지자 검사에서도 CA 19-9 6.47U/mL, CEA 0.42ng/mL로 정상 범위를 보였다. 복강경하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췌장미부에 비장과 인접한 약 3cm 크기의 연부 조직 종괴가 관찰되어 원위부췌절제술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육안 조직검사상에서 3.0X2.5X2.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미세 조직검사상에서 섬유화와 염증을 동반한 부비장 경색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좌상복부 통증은 호전되었으며, 특이 합병증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느릅나무 달인 물을 복용 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 및 급성 독성 간염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수미 · 유교상 · 문선유 · 정연손 · 김경오 · 정용우 · 박철희 · 한태호 · 박상훈 · 김종혁 · 박충기

우리나라에서 여러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민간요법이나 전통요법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까지도 매우 높다.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투여되는 여러 약초나 약제 등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들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급성췌장염은 약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민간요법으로 약초나 약제를 복용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연자 등은 건강을 위해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달인 물을 복용한 후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과 독성 간염의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느릅나무를 달인 물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흔히 위장관의 기능을 돕거나,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목적의 민간요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5세 남자가 평소 건강하였으나 건강을 염려하여 7일간 느릅나무를 달인 물을 복용한 후에 전신 무력감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황달은 없었으며 혈청 생화학검사상에서 AST 89 IU/L, ALT 252 IU/L, alkaline phosphatase 268 IU/L, gamma-GT 560 IU/L, 총 빌리루빈 0.5 mg/dl, 아밀라제 362 U/L, 리파아제 373 U/L 였다. 느릅나무 달인 물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입원하여 내과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추적 검사에서 혈청 생화학 검사와 췌장 효소는 점점 호전되어 약 2개월 후에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느릅나무 달인 물에 의한 독성간염은 국내에서 3예가 보고되었으나, 이번 증례와 같이 급성췌장염을 일으킨 경우는 없으며 특히 이번 증례에서는 독성간염도 동반되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민간요법이나 전통요법은 그 재료가 자연에서 오거나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쓰여졌다고 해서 항상 독성이 없고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무분별한 투여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이는 약제나 약초들에 대해서도 약물의 작용기전, 효과 및 독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